'지하주차장·간이실내불펜' KIA 30년만에 국내 동계훈련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서 첫 동계훈련 소화
1991년 제주도 이후 처음…날씨가 훈련 변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1시즌 가을야구 진출을 목표로 30년만에 광주와 함평 등지서 '국내 겨울 담금질'에 돌입했다.

KIA는 1일 오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에서 2021시즌 대비 동계훈련을 시작했다.

국내 동계훈련은 지난 1991년 제주도 이후 처음이며 윌리엄스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8명, 선수단 37명 등 총 55명이 참여했다.

투수조와 야수조로 나뉜 선수단은 실내와 실외에서 훈련을 소화했다.

지난 시즌 종료후 3개월만에 운동장에 나선 투수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공던지기'(캐치볼)를 하면서 몸을 풀었다.

특히 동계훈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신인 투수 이의리와 박건우, 장민기, 이승재는 윌리엄스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 던지기를 반복했다.

운동장 훈련을 마친 투수들은 방한·방풍시설이 갖춰진 투수 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훈련을 이어갔다.

KIA는 국내 훈련에 대비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좌우 외야 끝 불펜 투수 대기공간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뒤 천막을 덮어 실내 공간으로 만들었다.

폭설이나 강풍에 버틸 수 있도록 지어진 불펜 내부에는 난방기기와 조명이 설치됐으며 불펜 한 곳 당 투수 2명이 동시에 투구할 수 있다.

야수조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동계훈련을 소화했다.

최형우와 나지완·김선빈·황대인 등 주요 선수들은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뒤 지하주차장 180m 구간을 전력 달리기 하며 훈련을 펼쳤다.

왕복 6회를 반복한 선수들의 입에서 거친 숨이 나왔지만 선수들은 모처럼 진행된 단체훈련을 무난하게 소화했다.

KIA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이 비시즌 동안 개인 맞춤형 훈련을 했고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동계훈련은 추위 등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반에는 실내 훈련 중심으로 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의 몸 상태에 따라 훈련 막바지에는 15게임 정도 연습게임을 해 실전 감각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고 훈련 계획을 설명했다.

1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지하 주차장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21시즌 가을야구 진출을 목표로 30년만에 '국내 겨울 담금질'을 하고 있다. KIA는 지난 1991년 제주도에서 동계훈련을 소화했었다.

한편 퓨처스 선수단도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이범호 총괄코치의 지휘 아래 함평 KIA챌린저스필드(함평)에서 동계훈련을 소화한다.

김민정 기자

나지완 "두산·LG넘어 5강 이상 목표…양현종 넘는 영웅 기대"

"지난 시즌 제 2의 홈구장인 잠실야구장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자존심이 상했다. 올 시즌에는 두산과 LG를 넘어 5강 아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겠다."

2021시즌 주장으로서 동계훈련 돌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주장 나지완은 2021시즌 대비 동계훈련을 시작한 1일 "에이스 양현종이 없지만 또다른 난세 영웅이 나타날 것이다"며 가을야구를 목표로 제시했다.

나지완은 이날 오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지는 동계훈련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2021시즌 포부를 밝혔다.

나지완은 "양현종은 선수들과 구단에 의미가 있는 선수였고 없으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며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잘 헤쳐 나가면 난세 영웅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윌리엄스 감독도 그런 부분들을 잘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후배들과 선배들이 뒷받침 해주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며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나지완은 지난시즌 제2의 홈구장인 잠실에서 두산과 LG에 약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맞춤형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나지완은 "잠실은 제2의 홈 구장이었는데 두산과 LG에 많이 당해서 선수들이 자존심 상했다"며 "LG, 두산을 넘어야 5강 아닌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준비를 하고 동계훈련을 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IA는 지난시즌 두산에 3승 13패, LG에 5승 11패를 당해 전체성적 73승 71패 6위에 머물러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다.

이어 "비시즌 특화된 훈련법은 다이어트 였다"며 "경기에 나서면 수비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110kg대 몸무게를 104kg까지 줄였고 시즌 막바지에는 100kg을 유지할 계획이다"고 이야기했다.

또 "올해도 목표는 3할 100타점이다"며 "중심의 자리에서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하고 중요한 순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윌리엄스 감독이 지명을 했을 때 하겠다고 답했다"며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프런트와 감독의 중간에서 후배들과 선배들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가시밭길 선택한 양현종, 최대한 빨리 담판 짓는다

"접촉 구단 많아 스플릿 계약 등 검토…미국 무대 도전하는데 초점"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하기 위한 양현종(33)이 첫발을 잘 내딛을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던 양현종은 지난해를 끝으로 해외 진출을 선언했다. 양현종이 원하는 꿈의 무대는 바로 메이저리그다.

KIA는 양현종을 잡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도전을 위한 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미국 구단과의 계약에 집중한 양현종은 그동안 메이저리그 구단의 오퍼를 기다렸다. 우선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기 위해 눈높이를 대폭 낮췄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구단을 만나지 못했다.

양현종이 스플릿 계약을 한 후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경쟁을 통해 빅리그 로스터 진입에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채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유의 단축 시즌(팀당 60경기)을 치렀고, 마이너리그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KIA와 결별을 선언한 상황에서, 자칫 양현종의 1년이 날아가버릴 수도 있다.

현재 양현종 측은 복수의 구단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현종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메이저리그 캠프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양현종이 취업비자 등 계약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다시 입국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하면 시즌을 준비하고, 몸을 만들 시간은 촉박하다.

미국 무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계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현종의 에이전트 최인국 대표는 "접촉하는 구단은 많지만,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다. 지금 시점에서 무언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 양현종 선수의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어 "현재는 어떤 조건보다 미국 야구에 도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계약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몸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스플릿 계약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손흥민 부진은 '조력자' 케인의 부상 때문일까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주춤하다. 최근 공식전 5경기 연속 침묵이다. 설상가상 '조력자' 해리 케인이 발목 부상으로 이탈했다. 올 시즌 거침없는 질주를 해오던 손흥민의 득점 행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손흥민은 지난 1일(한국시간) 영국 브라이튼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언과의 2020~2021시즌 EPL 21라운드 원정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팀의 0-1 패배를 막지 못했다.

후반에는 장신 골잡이 카를로스 비니시우스가 투입되면서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했지만, 케인과 보여줬던 호흡을 선보이진 못했다.

손흥민도 브라이튼전 슈팅이 총 2개에 그쳤고, 그중 유효슈팅은 1개였다.

최전방은 손흥민에게 낯선 역할이 아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케인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자 손흥민이 최전방 원톱 포지션을 소화한 적이 있다.

최근 공식전 5경기 연속 골 침묵 중…토트넘도 2연패
다행히 예상보다 빠르게 케인 2주 뒤 복귀 가능성 점쳐

직전 리버풀과의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1-3 완패를 당했던 토트넘은 2연패에 빠지며 승점 33점으로 6위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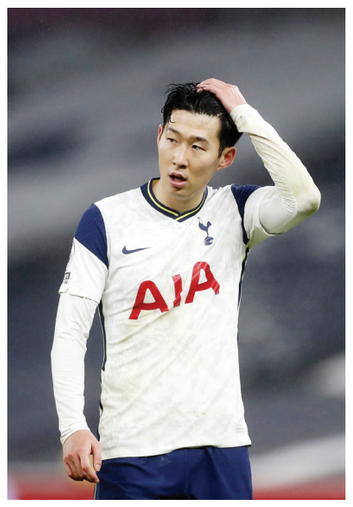
리버풀전에서 발목 부상을 입은 케인이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조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함께 스테번 베르흐베인과 가레스 베일을 선발로 내세웠다.

빠르고 개인 기술이 뛰어난 3명의 윙어를 배치해 케인의 공백을 메우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단짝' 케인을 잃은 손흥민은 전방에 자주 고립됐고, 베일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토트넘은 무득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일명 '손톱(son-top)'으로 불린 당시 전술은 기대 이상이었다. 당시 리그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을 통틀어 공식전 5경기 연속골(6골)을 터트리며 케인 공백을 말끔히 메웠다.

비록 지난해 2월 아스톤빌라전 오른팔 골절 부상으로 득점 행진이 멈췄지만, 무리뉴 체제에서 손흥민의 원톱 전술을 상대에게 매우 위협적인 카드였다.

하지만 1년 사이 상황은 달라졌다. 이전에는 손흥민의 뒤에 다양한 조력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경쟁에 밀리거나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상황이다.



반면 손흥민은 케인과 최고의 호흡을 자랑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만 13골을 합작했다. 이는 1994~1995시즌 블랙번 로버스에서 13골을 함께 한 앨런 시어러와 크리스 서튼의 단일 시즌 최다골과 타이 기록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케인의 복귀 시점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애초 케인의 복귀까지 최대 6주가 예상됐으나, 브라이튼전이 끝난 뒤 무리뉴 감독이 "2주 뒤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토트넘의 바람대로라면, 14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24라운드엔 뛸 가능성이 있다.

뉴시스

"우리 작년 1위팀이야" SK·DB가 부담스럽다

프로농구 하위권에 처져 있는 서울 SK와 원주 DB가 전력을 되찾으며 치열한 순위 경쟁에 돌입한 상위권 팀들에 재를 뿌리기 시작했다.

DB는 1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부산 KT와의 경기에서 99-88로 승리했다.

지난달 27일 선두 전주 KCC를 84-82로 꺾는 등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로 상승세다. 12승24패인 DB는 9위 창원 LG(12승23패)와 승차를 반 경기로 좁히며 탈꼴찌를 눈앞에 뒀다.

이에 앞서 SK는 지난달 24일 KCC의 13연승 도전에 제동을 걸었고, 31일에는 2위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전반에만 60점을 퍼붓는 공격력을 뽐내며 8연승 도전을 꺾었다. SK(15승20패)는 8위다.

시즌 전 전망을 감안하면 각각 8위와 10위에 있는 SK, DB의 순위는 어색하다. 두 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조기 종료된 지난 시즌 공동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즌에도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SK는 최준용, 김선형, 안영준 등이 부상으로 전열에서 빠지는 등 코트 안팎에서 변수가 생기며 부진의 늪에 빠졌다.

DB는 재계약한 외국인선수 치나누 오누아쿠가 시즌을 앞두고 합류하지 않으며 차질이 생겼다.

SK는 공동 5위 KT, 인천 전자랜드(이상 18승17패)와 3경기 차, DB는 6경기 반 차이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기대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 진출과 순위 경쟁으로 1승이 아쉬운 상위권 팀들 입장에선 매우 부담스러운 상대들이다.

이승우, K리그 아닌 포르투갈…·포르티모넨세 임대 보도

벨기에 무대에서 입지가 좁아진 이승우(23·신트트라위던)가 K리그가 아닌 포르투갈에 진출할거란 현지 보도가 나왔다.

포르투갈 매체 오조고 등 복수 매체는 2일(한국시간) "이승우가 포르투갈 1부리그 포르티모넨세로 임대 이적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적시장에서 스포르팅 공격수 곤살로 플라타(에콰도르) 영입에 실패한 포르티모넨세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 출신의 이승우를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승우는 이번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로 뛰게 되며,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돼 있다.

포르티모넨세는 이번 시즌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에서 13위(4승3무9패)를 달리고 있다.